

#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 '전주'

## 뉴욕페스티벌 주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대상' 서 선정 대상 수상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인 전주가 가장 가고 싶은 도시로 뽑혔다.

전주시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3대 광고제인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은 국내 산업과 지역,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국가브랜드 경쟁력 지수를 평가해 부문별 1위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주는 지난 1월 1일부터 16일간 전국 만 16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지도와 만족도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어 제주, 목포, 경주 등 국내 유수의 관광도시들을 제치고 '방문하고 싶은 도시'



전주시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부분 1위를 차지했다. 다른 관광일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제즈 페스티벌 △전주 미식여행 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드라마 촬영지와 연계한 여행상품 구성 및 홍보를 통해 직접적인 전주 방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외국인들의 관광이 전주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SNS 채널을 상시 운영해 전주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대상 이벤트와 전주관광 웹툰 제작 등을 통해 전주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거점도시 전주가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적이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는 만큼 전주가 가진 다양한 브랜드를 활용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 전주 곳곳 찾아가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

### 시, 11월까지 시각예술 작가 20명 작품 선보여

전주시민과 여행객이 쉽고 편하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곳저곳을 찾아가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 곳곳을 이동하며 시민과 여행객이 쉽고 편하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이 지난 1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주역 앞 첫마중길 광장 등 전주 일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동형 갤러리 '꽃심'은 지역의 예술 작가들에게는 전시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길이 7m, 폭 3m, 높이 2.7m의 이동형 갤러리 '꽃심'은 전주역 앞 첫마중길 광장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오거리광장, 삼천천 등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 7~8월 휴식기 4주간은 운영되지 않는다.

올해 참여 작가는 공개모집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명의 시각예술 작가들로, 참여 작가들은 2주마다 돌아가며 한국화, 문인화, 조각, 서양화 등 특색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에게는 작품의 이송과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소정의 운영수당이 지급되며, 12월에는 참여 작가 20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합동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동형 갤러리 '꽃심'은 현재 홍익대 회화과를 전공한 박정우 작가가 '하트화화시리즈-사람이 없다면'이라는 주제로 오



는 11월까지 전주역 앞 첫마중길 광장에서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전쟁의 비극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메시지를 담은 신작과 사랑의 하모니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 10여 점을 선보이고 있는 박정우 작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이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현상들이 바로 답일 것"이라며 이번 전시의 의미를 설명했다.

임숙희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동형 갤러리 '꽃심'은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을 통해 작가와 시민, 여행객이 현장에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매년 지역작가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작가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 힘을 실어주어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형 갤러리 '꽃심'의 전시일정과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문화정책과(063-281-26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상기자

# 디지털 교육 원하는 시민 누구나 역량교육 제공

## 전주시, 11월까지 공공시설·노인복지관 등 디지털배움터 16곳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내 곳곳에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배움터가 조성된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주 곳곳에 '디지털배움터'를 마련하고 교육 수강생을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배움터는 디지털 교육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디지털 역량교육을 받

을 수 있는 장소다. 전주역세권에 마련된 거점센터를 비롯해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과 노인복지관 등에 조성된 디지털배움터 16곳에서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요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초(스마트폰 활용, SNS기초 등) △디지털 생활(키오스크, 교통카드 활용 등) △디지털 심화(온라인마켓, 코딩, 자격증 등) △특화교육(커머스, 디지털농업

확대 등) △디지털 특별(드론, 메타버스 등) 등이다.

이들 교육은 계층별·수준별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교육을 주관하는 KTcs와 함께 거점센터 교육공간에 디지털체험존을 구축해 스마트패드와 AI스피커, 드론,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배경남 전주시 스마트시티과장은

/김윤상기자

## 전주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가입자 모집

전주시가 일하는 저소득층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시는 6일부터 일하는 기초수급·차상위가구와 저소득 근로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올해부터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희망내일저축계좌로 통합·개편됐다.

먼저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

구가 가입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탈수급할 경우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차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재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 720만 원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울

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됐으며,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로 구분해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는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39세인 청년이거나 가입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차상위 초과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필요로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면 가구 내 재산이 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차상위 이하'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되며,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 원 추가 적립된다.

시는 올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를 총 8차에 나눠 모집할 예정으로, 1차 모집에는 6일부터 20일까지 주주지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과 7월, 10월 총 3차에 걸쳐 모집하며, 1차 모집이 6일부터 19일까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은 오는 7월과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형 일자리 5만개 창출하겠다"

###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6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전주형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우 후보는 이날 공약을 통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금융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금융산업 일자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전주만의 문화자산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우 후보는 먼저 글로벌기업과 기술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의 이전·창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다. 50층 규모 전주국제금융센터(JIFC)를 건립해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 우 후보는 "전북혁신도시를 확장해 제3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자산운용사의 집적화를 추진해 양질의 금융산업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 예비후보는 "전주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주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역사, 종교를 아우르는 문화자산을 기업화해 전주만의 문화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광주부시장직접 '광주형일자리'를 대동하게 했고 전북 정무부지사 재임 때는 '군산형일자리' 지정을 이끌어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박 나는 전주형일자리 만들며 청년이 풀려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전주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인후공원 불법 경작지 나무 식재 솎아 정리

전주시가 불법 경작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인후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시는 인후공원 일원(우아동3가 409번지)의 불법 경작지를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주기 위해 은행나무 등 100여 그루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1992년부터 불법경작으로 몸살을 앓아온 이곳은 시간이 지남수록 불법경작 규모가 커지면서 공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농경지로 변질돼 퇴비 악취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매입 절차를 거쳐 해당지역을 사유지로 매입하고, 기존 불법경작에 따른 적치물을 전부 철거했다. 시는 이곳에 아름다운 나무

등을 심고 원형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할 계획이다.

식목일인 지난 5일에는 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와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전개했다. 행사에는 송승룡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산수유와 이팝나무 등 3개 품종 총 46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송승룡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은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전주시민들이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주시길 희망한다"며 "전주시와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탄소중립 등 운동본부에 성격에 맞는 지자체 사업들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나도 시인' 시민 시 쓰기 교육

### 학산숲속시집도서관, 김사인 시인 초청 진행

전주시는 6일 시집전문도서관인 평화동 학산숲속시집도서관에 김사인 시인을 초청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나도 시인' 시민 시(詩) 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색을 담은 시를 쉽게 쓰는 것을 돕기 위해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시 쓰기, 그리고 시 쓰기의 근본 문제'라는 주제로 다음 달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김사인 시인으로부터 지식이나 교양이 아니라 실천이자 체험으로서의 시 쓰기와 시 읽기를 배우게 된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이번 시민 시 쓰기 교육에 이어 시로 사색하며 즐기는 연중 프로그램으로 '시집 때때로 만나고 배우는 숲속의 낭독'을 주제로 △시인 초청 강연 '시가 머무는 숲'(5~11월) △시인과 음악 예술인이 함께하는 '숲속 낭독 공연'(4~10월) △시 낭독 교



육 프로그램 운영(9~11월) 등 다채로운 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을 이끄는 김사인 시인은 한국문학번역원 원장과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역임했으며 △2015년 제15회 지훈상 수상 △2006년 제14회 대산문화상 시부문 수상 △2005년 제50회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한 연륜있는 시인이다. 저서로는 시집 '어린 당나귀 곁에서'와 '가만히 좋아하는' 등이 있다. /김윤상 기자

/김윤상기자

## "주민센터에 법원 서류 발급기 설치할 것"

###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5일 "법원인감증명서 등 각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까지 가야 한다"며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법원서류 발급기를 주민센터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기업들은 각종 입찰 등에서 3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요청받고 있으며, 지원금 등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도 많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원까지 이동해 발급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윤상 기자

이 예비후보는 "법원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서류 발급기를 주민센터 등 다중집합장소에 확대·설치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전주로 한 단계 더 발돋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행정복지센터에 법원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법원 민원서류를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며, 창업중소기업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해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돕는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예비후보는 "민원서비스의 접근성 강화와 각종 행정 절차의 신속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정과 기업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소통민원행정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